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주일에배 설교 음성서비스

Apple Podcasts 팟캐스트

Spotify 스포티파이

팟빵 오디오클럽



EI SHADDAI,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2024 청장년부 여름캠프, 8월 31일(토) ~ 9월 1일(주일)까지 진행

지난 8월 31일(토) 제18회 청장년부 아청캠프 (아름다운 청장년부)가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창 17:1~2)라는 주제로 광림 세미나하우스에서 1박 2일간 진행되었다. 광림의 기둥인 3040 청장년부(위원장 신범식 장로)는 교회학교와 사랑부에서 교사로 봉사하는 청장년들이 성경학교를 마치고, 또 청장년부의 자녀들이 성경학교를 모두 마친 후 전교인 수련회가 끝난 매년 8월 말과 9월 초에 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세미나하우스는 아청 캠프에 등록하기 위해 방문한 많은 청장년부의 성도들로 북적거렸다. 개회예배는 광림 세미나하우스 인근에 위치한 광림북교회 담당 김우진 목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갈 3:12~1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른 시간부터 예배당을 가득 메운 청장년부 성도들과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며, 이번 캠프를 통해 벨엘의 은

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어진 오후 프로그램에는 청장년1부(싱글), 청장년2부(기혼)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진 '한마음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함께 교제하고 단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룹별 족구와 탁구 등 체육 활동과 아트 테라피, 팝아트 초상화 그리기, 나눔 등을 하며 일상에 지친 청장년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었다. 가사와 아이 돌봄으로 지쳐있던 청장년부 젊은 엄마들에게는 내면의 힘을 찾는 아트 테라피를 통해 인생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이 되었다.

저녁 집회는 청장년부 담당 황지수 목사가 이번 캠프의 주제인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창 17:1~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시대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전하며 청장년 세대에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

기를 축복했다. 저녁 집회를 통해 청장년부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삶에 역사하시기를, 굳은 마음이 살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새벽예배로 시작한 둘째 날 일정은 은혜의 연속이었다. 본당과 동일한 순서로 주일에배를 드리기 위해 한 달간 준비한 청장년부 연합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가 진행되었고 현금송은 청장년1부 김지연 성도의 바순 연주로 은혜를 더했다.

주일에배를 인도한 황지수 목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요 14:25~27)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캠프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전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

가는 청장년부에게 성령과 동행하기를 권면했다. 예배 후에는 특별히 기획한 달란트 잔치를 통해 구입한 물건을 함께 나누며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을 나눔의 기쁨으로 채웠다.

특별히 청장년부는 이번 캠프를 계기로 세미나하우스에 탁구대를 기증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하우스를 담당하는 양원식 권사는 "세미나하우스를 리모델링하며 낡은 탁구대를 폐기했는데 청장년부에서 기증한 탁구대가 큰 힘이 된다"고 전했다.

이번 아청캠프를 통해 청장년부의 모든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정과 기업,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아름다운 청장년부가 되기를 다짐했다.

유심원 전도사(청장년부)

2 광림의 강단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들

3 광림 스토리
감람동산 합동추모예배

4 하나님을 만나다
광림 교인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

5 다음세대
청년선교국 국내교육선교

8 복음, 문화와 만나다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골 3:12)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 세 가지 용어, '부르심을 받은 자', '거룩한 사람들', '사랑받는 자'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단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자 그리스도인이 입은 옷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구체적인 윤리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긍휼함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이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발에도 비를 내리시고 착한 자의 발에도 비를 내리시는 것과 같이 온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잘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직적인 사랑이요, 하향의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긍휼과 자비는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둘째,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기독교 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겸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바울이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였을까요? 바울의 이 말은 자신이 그만큼 교만한 자였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고 이로 인해 거룩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함은 그리스도인에게 없어서는 안되며, 놓쳐서도 안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또한 겸손할 때에 온유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구해야 합니다.

윌리엄 캐리(William Carrey)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한 평생 인도에서 고생하며 선교하신 분입니다. 그



골로새서 3:12~17
12.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는 자신을 ‘벌레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사후에 무덤의 비석에 쓰일 비문을 적어 놓았고, 그가 죽은 후, 그의 후손들이 그대로 써넣었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 1761년생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당신의 긍휼하신 거룩한 손에 기대어 살다 여기에 잠들었다.” 진정 그가 벌레 같은 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윌리엄 캐리는 자신을 계속해서 낮추고, 또 낮추며 살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인도 선교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떠한 일에도 불만이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감사할 수 있으며,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오래 참으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참고 견디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참

되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오래’라는 단어는 시간적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리한 일에도 참는 것이요, 억울한 일에도 참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 예수님은 모진 고통의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당신을 배반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참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에게에는 이러한 고귀한 성품의 사람, 고귀한 내적 성품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한다면 자신은 성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부

르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으로 세우시며, 우리 안에 긍휼과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의 성품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은 자가 갖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은 무엇입니까?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할 때, 나의 인격과 성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가치의 기준을 옳고 그름에 두고, 그것으로 일의 가치를 삼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가치의 기준을 ‘나의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인가?’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일을 결정할 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긍휼함과 겸손함 그리고 자비와 오래 참음의 내적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서로 피차 용납하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이 땅에 평화를 심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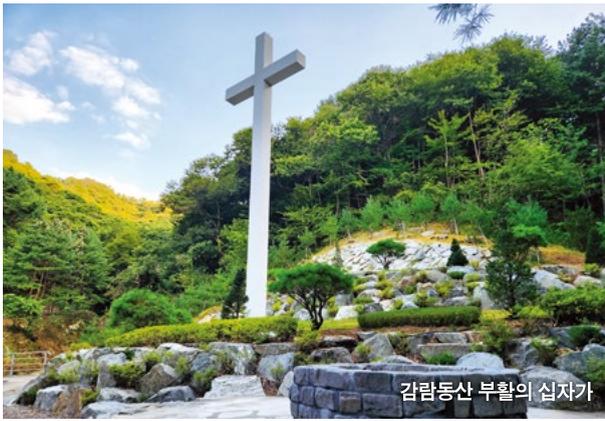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는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림교회 주일설교를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추석 앞두고 감람동산 합동추모예배 열려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얻다



감람동산 부활의 십자가

산골터

광림교회는 일 년에 두 번, 한식인 봄과 추석 이 있는 가을에 합동추모예배를 드린다. 올해도 추석을 앞둔 9월 7일 오전 10시, 강원도 춘천시 서면 안보리에 위치한 감람동산 잔디광장에서 합동추모예배가 열렸다.

경조위원회(위원장 배경호 장로) 주관으로 진행된 합동추모예배에는 400여 명의 유가족이 참석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고인을 추모하며 천국 소망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배경호 장로의 기도와 여선교회 성가대의 찬양이 감람동산에 울려 퍼지며 예배에 참석한 이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전해주었다.

이날 조성한 묵사는 요한복음 11장 25~26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기억·위로, 그리고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다. 우리는 고인들의 삶과 믿음을 기억해야 하며, 하나님

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 슬픔을 이겨내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말씀으로 전했다.

최근 감람동산 위쪽으로 새롭게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하는 12m의 흰색 대형 십자가(일명 '부활의 십자가')가 세워졌다. 또 팔복을 상징하는 산골터도 조성되었다.

합동추모예배 후 사랑의집에서 생활하던 고(故)송형섭 성도 추모예배이자 새롭게 조성한 산골터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

광림교회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3차에 걸쳐 155명의 고령의 사할린 동포들을 사랑의집으로 모셔와 돌보았는데,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기념비적인 일로 꼽힌다. 16세 나이에 사할린으로 강제징용을 간 뒤 1992년에 영주

귀국하여 사랑의집에 입소한 송형섭 성도는 그 당시 입소한 사할린 동포 중 마지막 생존자로 사랑의집에서 30년을 보내고 소천했다.

배경호 장로는 "감람동산은 세례를 받은 성도의 직계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장례를 통해 믿지 않는 직계가족이나 친지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장례나 이장을 원하는 성도들은 교구 전도사나 경조위원회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 경조위원회 조항장 권사
(010-5218-4453)

한혜선 기자

포토 뉴스



여름성경학교 보고예배
8월 25일(주일) 저녁예배에서 교회학교와 사랑부의 여름성경학교 보고예배를 드렸다.



여선교회총연합회 9월 월례회
9월 1일(주일) 여선교회총연합회 9월 월례회가 열렸다.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9월 3일(화)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개강해 이사회I 성경공부가 진행되고 있다.



빛의숲 광림 가족축제
제6회 광림 한마을등산대회가 실업인선교회 주관으로 10월 9일(수) 비전랜드에서 열린다.

담임목사 동정



- 9/1 여선교회총연합회 월례회
- 장학금 수여식
- 9/3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개강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박희운 기자

2024년 2학기 광림장학금 수여식

한국 감리교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 20명에게 주어져



미래의 한국 감리교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우수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제 32기 2024년 2학기 광림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9월 1일(주일) 저녁예배 시 광림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광림 장학위원회(위원장 최동호 장로)는 1998년부터 해마다 1학과 2학과 두 차례에 걸쳐 신앙생활에 본이 되며 학업과 봉사에 힘쓰는 대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는 광림교회 출석 가정의 대학생으로서 한 학기 이상을 마치고 성적이 B 학점 이상이며, 믿음 안에서 교회에 봉사하는 성적 우수 장학생과 선교사 자녀들을 대상으로 신앙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선교사 자녀 장학생 두 그룹으로 나누어 선발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20명에게 3,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광림 장학금은 성도들의 매월 1만 원 장학헌금, 개인 명의 기념 장학금, 기업 후원 장학

금, 장학 위원들의 헌금으로 마련되고 있다. 1만 원 장학 헌금은 성도들 누구나 매월 참여할 수 있으며, 감사헌금 봉투의 괄호 안에 '장학'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개인 명의 기념 장학 기금은 광림교회의 성도가 지정한 이름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김덕실, 오옥자, 이주형, 이해경, 김선옥 기념 장학금과 기업 후원 장학금인 RMS 기업 장학금이 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장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장학 증서를 전달한 후 "여러분은 광림교회 미래에 귀한 사람이며 믿음 안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뤄 나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꼭 이루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젊은 날, 자기의 실력을 연마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성취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귀한 일에 동참하신 광림의 권속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가을학기 교육 프로그램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광림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다양한 주말 교육 프로그램이 열린다.

토요일에는 츠즈라이프와 어번던트라이프, 유양겔리온 전도학교가 진행되며, 주일에는 평신도지도자 육성을 위한 4Steps 평신도지도자교육이 이루어진다. 특히, 4개의 단계 중 4Steps 2와 4Steps 3 강의를 각각 오전과 오후로 구성되어 있다.

속회지도자교육

속회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예배 공동체이며 교육을 통한 신앙의 성숙과 말씀 나눔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깨달아 가는 친교의 장으로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선교구별로 정해진 장소에서 진행된다.

츠즈라이프

츠즈라이프는 '생명을 선택하라'(신 30:19)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가면서 성경 전체의 맥을 잡는 성경공부 프로그램이다.

이번 학기는 '구약을 공부하게 된다. 9월 21일부터 10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12시, 웨슬리관 5층 세미나실에서 김덕민 목사가 강의한다.

어번던트라이프

성경과 교리, 교회사와 신학, 가정과 삶 등 실질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깊은 차원의 배움을 경험하는 주제별 집중 연구 프로그램이다.

9월 21일부터 10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12시, 두란노강의실(본당 지하)에서 김정우 목사의 강의로 진행된다.

유양겔리온 전도학교

'복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유양겔리온 전도학교는 전도 교육 프로그램이다. 실질적인 복음 제시 방법과 전도의 생활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9월 21일부터 4주간 오전 10시 30분~12시까지 나사렛성전에서 진행되며 박영균 목사가 강사로 나선다.

4Steps 평신도지도자교육

평신도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총 4단계(교라-제자도-섬김-영성)로 교회의 임원, 리더로 세워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4Steps 1 Knowing Jesus는 6주 과정으로 매주 주일 오전 9시 50분 ~ 10시 40분, 사회봉사관 5층 세미나3실에서 진행 중에 있다. 주일 교육프로그램인 4Steps 2 Follow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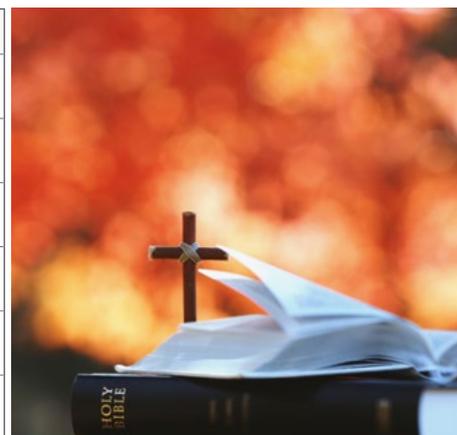
Jesus는 '제자도'를 주제로 10주간 주일 오전 11시~12시 30분까지 두란노강의실에서 황영재 목사가 강의한다. 4Steps 3 Serving Jesus는 '섬김'을 주제로 9월 22일에 개강하며 주일 오후 1시 30분~3시까지 두란노강의실에서 10주간 박지상 목사의 강의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영어로 성경을 배우는 English Bible Academy가 9월 1일 개강하여 11월 17일까지 12주간 교육 중에 있으며, 65세 이상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림S.E.C(평생교육대학원)은 9월 5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가을학기 교육프로그램 신청과 등록은 교구 전도사를 통하거나 매주 현장에서 할 수 있다.

유병권 기자

프로그램	일정	시간	장소	강사
속회지도자교육	9월 10일 ~ 11월 26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00 ~ 10:50	선교구별 지정 장소	선교구 목사
츠즈라이프	9월 21일 ~ 11월 23일 매주 토요일	오전 11:00 ~ 12:00	웨슬리관 5층 세미나실	김덕민 목사
어번던트라이프			두란노강의실	김정우 목사
유양겔리온 전도학교	9월 21일 ~ 10월 12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 12:00	나사렛성전	박영균 목사
평신도지도자교육 (4Steps 2)	9월 22일 ~ 11월 24일 매주 주일	오전 11:00 ~ 12:30	두란노강의실	황영재 목사
평신도지도자교육 (4Steps 3)	9월 22일 ~ 11월 24일 매주 주일	오후 1:30 ~ 3:00		박지상 목사



2024년 광림 교인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

'아름다운 나의 삶 마무리, 그리고 웰다잉'



광림호스피스선교회는 <2024년 광림 교인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을 오는 10월 1일 사회봉사관 5층 세미나실에서 개강한다. 올해는 '아름다운 나의 삶 마무리, 그리고 웰다잉'이란 주제로 10월 1일~29일(매주 화요일 13:30~16:30)까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후 진행된다.

광림교회는 현재까지 27차에 걸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진행했다. 지금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져 돌봄을 받는 분이나 돌보는 분들도 과거에 비해 고령화되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은 이전과 달

리 봉사자보다는 나 자신과 우리 가족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무의미한 삶의 연장보다 남겨진 삶의 소중함을 알고 향후 자신에게 임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2018년 2월 법으로 시행되었다.

호스피스 교육은 나의 존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나와 가족들의 남겨진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준비하는 시간이다.

호스피스선교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고통으

로 지치고 힘든 교인들과 가족을 사랑과 섬김으로 격려하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고 있다.

문의 : 회장 이혜선 권사(010-2307-3995)

총무 한경희 권사(010-7195-7640)

이정순 기자

날 짜	시 간	강의 내용	강사
10월 1일 (1주)	1:30~2:00	개강예배	노정현 목사 서울대병원 원목
	2:00~3:20	노인의 건강한 삶	함준수 교수 한양대 명예교수
	3:30~4:30	치매 관리 현황과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	김분한 교수 한양대 명예교수
10월 8일 (2주)	1:30~3:00	죽음의 이해	허성순 코디네이터 분당 서울대병원 호스피스
	3:10~4:30	사회 심리 영적 간호	강희정 코디네이터 서울의료원 호스피스
10월 15일 (3주)	1:30~3:00	사전연명 의료 결정	박진노 교수 은평성모병원 호스피스
	3:10~4:30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한국의 현황	박진노 교수 은평성모병원 호스피스
10월 22일 (4주)	1:30~3:00	환자와 가족을 위한 의사소통	이혜선 선교회장 광림호스피스선교회
	3:10~4:30	사별 가족 간호	양아름 코디네이터 전) 보바스기념병원 호스피스
10월 29일 (5주)	1:30~3:30	아름다운 나의 삶 마무리, 그리고 웰다잉 (삶의 아름다운 완성을 위하여)	김분한 교수 한양대 명예교수
	3:40~	수료식 및 종강 예배	조성한 목사 광림교회 기획목사



전국 13개 지역, 다음세대 신앙 회복과 교회학교 부흥에 앞장서다

2024 청년선교국 국내교육선교, 8월 1일~10일 진행

여름성경학교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아이들이 모이면 교회는 활기를 띠고, 복음의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전달되며, 이는 참석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여름성경학교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평생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재정 부족과 교사 감소로 인해 교회학교 운영과 여름성경학교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한 미자립 교회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은 매년 여름 청년들을 전국 각지에 파송해 이러한 교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2024 국내교육선교'는 전국 13개 지역, 110개 교회, 약 1,000명의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도할래요'(살전 5:16~18)를 주제로 한 이번 선교는 1차로 8월 1일부터 3일까지 부산, 고성, 부안, 익산, 화성, 용인, 가평, 강화, 예산, 충주 등 10개 지역을 섬겼습니다. 이어서 2차 교육선교는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천, 남양주, 당진에서 진행되었

으며, 이 지역의 다음 세대 신앙 회복과 교회학교 부흥의 불씨를 지켰습니다. 국내선교팀장을 맡은 김무성 형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선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선교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교육선교에서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남은 2024년에도 맡겨진 사역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청년선교국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용인 지역 팀장을 맡았던 우서영 자매는 "교육선교를 통해 지역 교회들이 연합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혼자 예배를 드리던 아이가 교육선교를 통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사귀게 된 것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번 2024 광림교회 청년선교국 국내교육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청년들의 작은 수고와 노력 위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13개 지역의 교회학교들이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영욱 전도사(청년부)



2024 광주동지방 연합여름성경학교
기도할래요
8월 1일(목)~3일(토)
중부교회

목회현장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



광림남교회 교육국은 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학령별 7개 부서와 어린이영어예배부(KEBS), 어와나 등 2개 부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중에 운영되는 목요 영어성경공부 등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육국 사역의 핵심가치는 ‘관심’입니다. 하나는 우리 삶에 친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서로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러한 관심을 통해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 복음의 능력

을 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안에는 세 가지 선한 열심이 있습니다. 첫째로, 모이기를 힘쓰는 열심입니다. 부서 사역이 시작되기 전과 후에 기도하는 교사들, 분반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청년들의 열심입니다. 특별히, 지난 8월 30일(금)에 금요은혜의 밤을 ‘청년부 일일 부흥회’로 정하고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에 성도님들도 말 그대로 ‘은혜의 밤이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교회학교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로 채워지도록 목회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창의적인 양육에 대한 열심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같은 공과 내용도 우리 아이들에 맞는 활동

을 만들어 내고, 더 나아가 내용을 풍성하게 하는 창의적인 양육으로 열매 맺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모든 부서에 은혜가 있었지만, 특히, 여름성경학교를 처음으로 진행한 어린이영어예배부서(KEBS) ‘요셉의 옷장’이라는 주제를 갖고 성경학교의 활동, 내용들을 창의적으로 준비하여 은혜롭게 진행했습니다.

다른 부서는 교사들이 직접 아이들을 위한 연극을 창작하고 준비하여 성경학교가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단 성경학교 때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부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 아이들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 교회학교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키오스크 사용법’ 등을 가르쳐드리는 시간 등을 통해 조부모님 세대를 섬기고자 계획 중입니다.

끝으로, 한 영혼에 대한 열심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참석하는 것에만 의미를 두지 않

고, 구원받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지는 데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유년부는 성경암송, 성경퀴즈대회 등과 ‘작은 음악회’라는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격려해서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악기 연주, 노래 등을 선택하고, 준비하여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도록 한 명 한 명을 격려하는 선생님들의 헌신 덕분에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행사가 아니어도 교회학교 모든 부서에는 예배 전에 아이들을 환대하며 얼굴 표정이 어두운 아이는 없는지부터 시작하여, 한 영혼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이 있습니다.

광림남교회 교회학교는 모든 선한 열심 위에 은혜를 더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달려감으로써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왕하 19:31)

선영진 목사(광림남교회 교육국)

광림남교회

영어예배부 첫 여름성경학교



광림남교회 영어예배부는 지난 7월 27일(토) ~ 28일(주일)까지 처음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요셉의 옷장’(창 37:3)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이 함께 은혜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하기 직전인 5월에 영어예배부에서도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해 보자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믿으며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교사들도 그 마음에 동참하며 가까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남교회 교회학교 주제가 ‘기도할래요?’였기에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고민하던 중 기도의 사람 다윗과 요셉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던 중 요셉 이야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6월과 7월 두 달 동안 평일과 주말 할 것 없이 온라인 채팅으로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예산도 없이 시작했지만, 재정부에서 특별예산을 편성해 주셨고 권정숙

장로님, 이진호 권사님, 송성숙 집사님의 개인 후원도 받게 되면서 풍성하게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7월 27일 토요일은 선영진 목사님의 ‘그를 더 사랑하시므로’라는 주제로 개회예배를 드리고 쿠키 만들기과 옷장 만들기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야외활동으로 물총놀이를 하였는데 온몸이 젖으면서도 웃음이 떠나지 않았던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모습은 모두를 웃음 짓게 하였습니다.

28일 주일에는 웨슬리 목사님(영어예배)이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날 만들었던 옷장 달란트로 달란트 잔치를 하며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옷장은 8월 마지막 주 성경학교 보고예배까지 예수와에 전시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소중한 추억과 즐거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박정은 권사(52교구)

동탄광림교회

아름다운 <꽃꽂이선교회>



동탄광림교회는 광림교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며 설립된 이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로 귀한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모인 꽃꽂이선교회는 그 사랑을 성전 장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올 7월 첫째 주부터 성전 꽃꽂이로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8명의 헌신적인 성전 꽃꽂이선교회 회원들이 바쁜 일상 중에도 시간을 내어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매주 예배당은 각양각색의 꽃들로 아름답게 꾸며지며, 성도님들의 봉헌으로 꽃꽂이 사역이 더욱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꽃꽂이선교회는 봉헌을 희망하는 성도들의 감사 내용에 맞추어 꽃꽂이 디자인이 이루어지며, 주 초에 디자인 초안을 작성한 후, 함께 기도하며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일찍 꽃 시장에 가서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과정과 함께 꽃꽂이를 완

성하고, 성전을 장식하고 미화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봉헌하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 적거나, 매주 금요일 아침 일찍 꽃 시장을 가야 하는데 교통편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혹시 일손이 부족하는 등 여러 걱정이 앞서기도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모든 길을 순조롭게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봄에는 새 생명의 기쁨을 알리는 예쁜 꽃 화분들로 예배당 입구를 장식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오가는 특성을 고려하여, 예배당 입구에 방울토마토 화분을 두어 아이들이 오고 가며 열매가 맺히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섭리에 대해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동탄광림교회의 성전 꽃꽂이선교회는 앞으로도 감사와 헌신으로 더욱 은혜롭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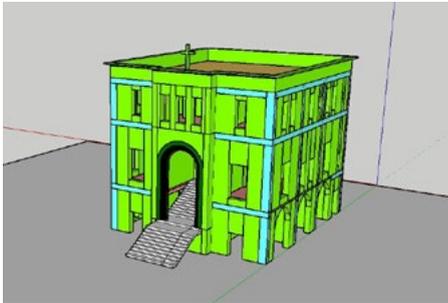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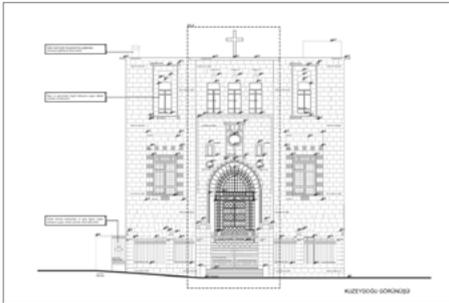
공수행 집사(75교구)



튀르키예 안디옥 개신교회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

임시 예배처소에서 매주 예배드리며 신앙고백, 지진 후 20여 명 넘게 세례 받아



튀르키예 안디옥 개신교회 예배당이 2023년 2월 6일(월) 지진으로 무너진 후 20개월이 지났습니다. 안디옥 개신교회는 베드로와 바울의 신앙 전통이 살아있는 안타키아(성경의 수리아 안디옥)에 세워진 유일한 개신교회입니다. 현재 안디옥 개신교회 주변에 금이 간 건물 몇 채를 제외하고는 모두 철거된 상태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도시 또는 도시 외곽 임시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시가 유령도시처럼 밤에는 인적이 드물며, 낮이라고 해도 공사 인력을 제외하고는 지나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안디옥 개신교회는 지진 직후 12주 동안 무너진 예배당 앞에서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렸으며, 이후 임시 예배처소를 마련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인근 도시로 피난 간 성도와 안타키아 외곽 임시 처소에서 생활하는 성도

가 함께 모입니다. 매주 약 40~50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디옥 개신교회가 있던 주변에는 문화재 건물과 관공서가 많이 있었는데, 먼저 도청 건물이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개신교회와 같은 양식으로 지어진 문화재 건물로 모두 해체하고 내진설계를 해서 복원하는 중입니다. 그 외 일반 건물들은 언제 복구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건축 허가가 나와야 하는데, 행정이 마비되다 보니 쉽게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안디옥 개신교회는 그동안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의 가족과 친인척을 돕고 지원하는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광림교회 성도들의 따뜻한 구호의 손길이 있었기에 현지에서 가장 빠르게 대처하며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그들의 가족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기도 했고, 세례를 받는 인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진 후 현재까지 20여 명이 넘는 성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슬람 땅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감격스러운 일이며, 이런 귀한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현재, 성도들과 함께 난민캠프 돕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며, 특별히 시리아 난민캠프 지원과 지진 피해 지역 아동들을 위한 '이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개신교회는 튀르키예 정부에서 지정 한 문화재로서, 건물을 원형 그대로 복원해

야 합니다. 지진 직후 구조작업과 함께 성전 재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며, 문화재 피해 현장 조사와 피해 건물 및 건축재료 파악을 완료했습니다. 튀르키예 문화재청에 복원 프로젝트를 위한 설계 도면을 완성했으며, 현재 구조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회사 선정 과정, 허가, 건축까지 많은 과정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안타키아(안디옥) 지역의 문화재 건물 중 가장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건축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공사 허가가 나오고 건축회사가 선정되기까지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튀르키예 안디옥 개신교회 장OO 선교사



봉사를 통해 예수의 향기가 넘치기를

사회사업위원회 - 김명진 권사



사회사업위원회에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사랑의 돌봄 행사를 하고 있다. 지금은 1년에 10회 내외로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매주 수요일 새벽, 1년이면 52회 이상 실시했다. 오랫동안 회원으로 봉사를 하면서 또 어르신들에게 나눠주는 물품 중에 성경 말씀이 들어간 사탕 봉지를 후원해 온 김명진 권사를 만나 보았다.

사회사업위원회 봉사는 언제부터 하게 되었는지요?

2000년 가을, 광림교회에 출석한 후 2004년쯤 전도사님이 권유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카네기나 록펠러 같은 사회사업가가 로망이었을 만큼 사회사업에 대해 낭만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원기도 까지 했기에 지금까지 계속 봉사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면서 은혜를 받거나 기억에 남은 일이 있다면?

사회사업에 대한 제 생각은 기부금을 많이 모아서 구제사업을 하는 것이라 여겼는데, 어느 날 사회사업은 내 돈으로, 내 몸으로 직접 하는 것이며,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일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김선도 감독님이 봉사 현장을 자주 오셨는데, 한번은 현금이 두툼하게 든 봉투를 주시며 '교회를 찾아오는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써달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그동안 사탕을 후원해 왔는데 어떤 계기로 시작했는지요?

10여 년 전, 저희 시어머나가 나이 80에 갑자기 시력을 잃으셨는데 그때 성경 말씀을 넣어 사탕 포장하는 일을 봉사 겸 소일거리로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후엔 광림평생대학원의 협조가 뒤따랐는데, 당시에는 매주 수요일 새벽 봉사를 했기에 그 양도 상당해서 종강 날엔 전 회원이 다 같이 포장에 참여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사진 참조).

사회사업위원회 활동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2015년경 비전랜드에서 촉법소년 대상 영성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재능기부로 온 한 소년이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가 몇 년이 지난 2022년 롱티보 국제콩쿠르에서 1등을 한 이혁 피아니스트입니다. 그의 꿈은 사회사업가라면서 어려서부터 재능기부를 하고 또 자선음악회를 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소망이나 바람이 있다면?

오래전 담임목사님께서 월례회에 오셔서 '1교인 1봉사, 교인 한 분, 한 분이 봉사활동을 한 가지씩 참여했으면 좋겠다. 봉사를 돈으로만 하지 말고, 속회나 선교회 모임 시에도 친교에서 나아가 봉사활동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차고 넘치는 광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향기가 사회로, 국가로, 세계로, 마지막에는 하늘에까지 닿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이득섭 기자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51-2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 ②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고전 13:11-13)

이어서 바울은 사람의 몸이 많은 지체(肢體)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음을 설명한다. 즉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모두 ‘한 몸’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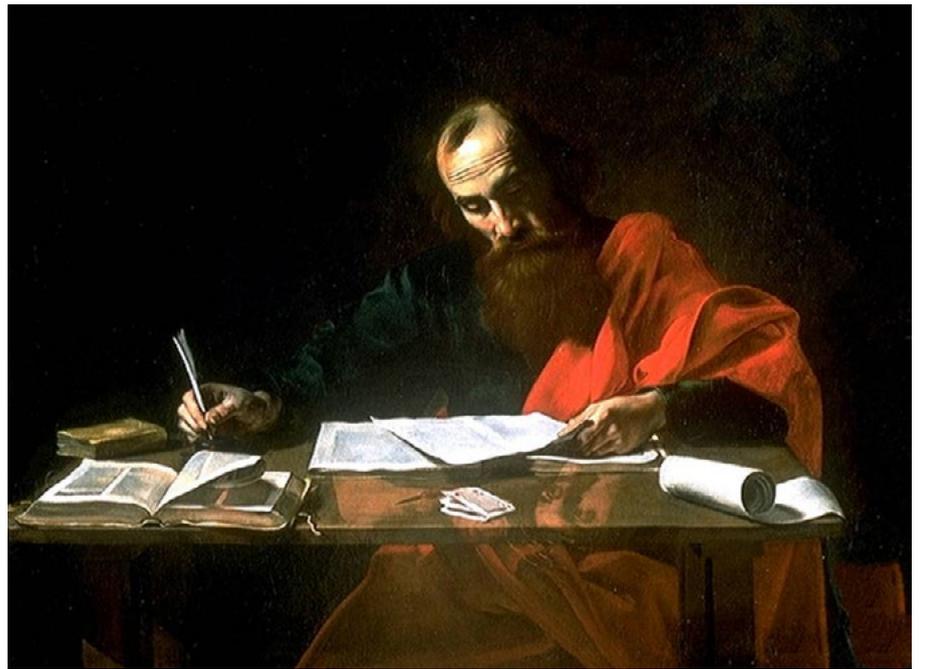
“말하자면 여러분이 모두 함께 모여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여러분 하나 하나는 따로 떨어져 있으나 모두가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지체들이라는 말입니다” (고전 12:27)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

하면서 성도들에게 사랑을 강조한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가르침이다. 사랑은 성도의 처음이자 과정이며, 끝이다.

또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죽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도 하늘보다 높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건디느니라. 사랑은 언제나 떠나지 아니하며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



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고전 13:1-13)

▲ 서신을 쓰는 사도 바울_ 신약 성경 27권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은 13권으로 그 비중이 높다. 그가 쓴 서신은 ‘사대 서신’, ‘옥중 서신’,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며, 신학(神學)의 기반이 되었다. 발랭 드 블로냐의 작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죽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피 흘려 주셨으니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신 지금에 와서는 얼마나 더 많은 놀라운 일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도 그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는 지금에야 얼마나 더 큰 복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롬 5:6-10) - 현대어성경

사도 바울은 유연하고 폭넓은 지성인이었다. 그가 쓴 편지들은 기독교 신학(神學, 종교의 교리 등을 연구하는 학문)의 핵심이 명확하고 체계적인 문장으로 펼쳐진다.

*문의 : 빛의 숲 서점(02-2056-5771)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 사도 바울_ 바울은 자신의 전 생애를 복음 전파에 힘썼으며,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서 기독교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제레미 워커의 작품.

광림 뉴스레터

